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포스트휴머니즘에 관점에서

1. A.I. 시대의 윤리학의 지형도
2. Posthumanism의 존재인식론(On-to-Epistemology)
3. Posthuman적 존재들(인간, 동물, A.I.)의 관계성
4. 포스트휴먼적 존재의 윤리적 기초
5. A.I.(Posthuman) 시대의 윤리학의 패러다임

# 1. A.I. 시대의 윤리학의 지형도

## 윤리학의 개념 범주 (박휴용, 2014)

Aristotle(도덕적 행위론) → 덕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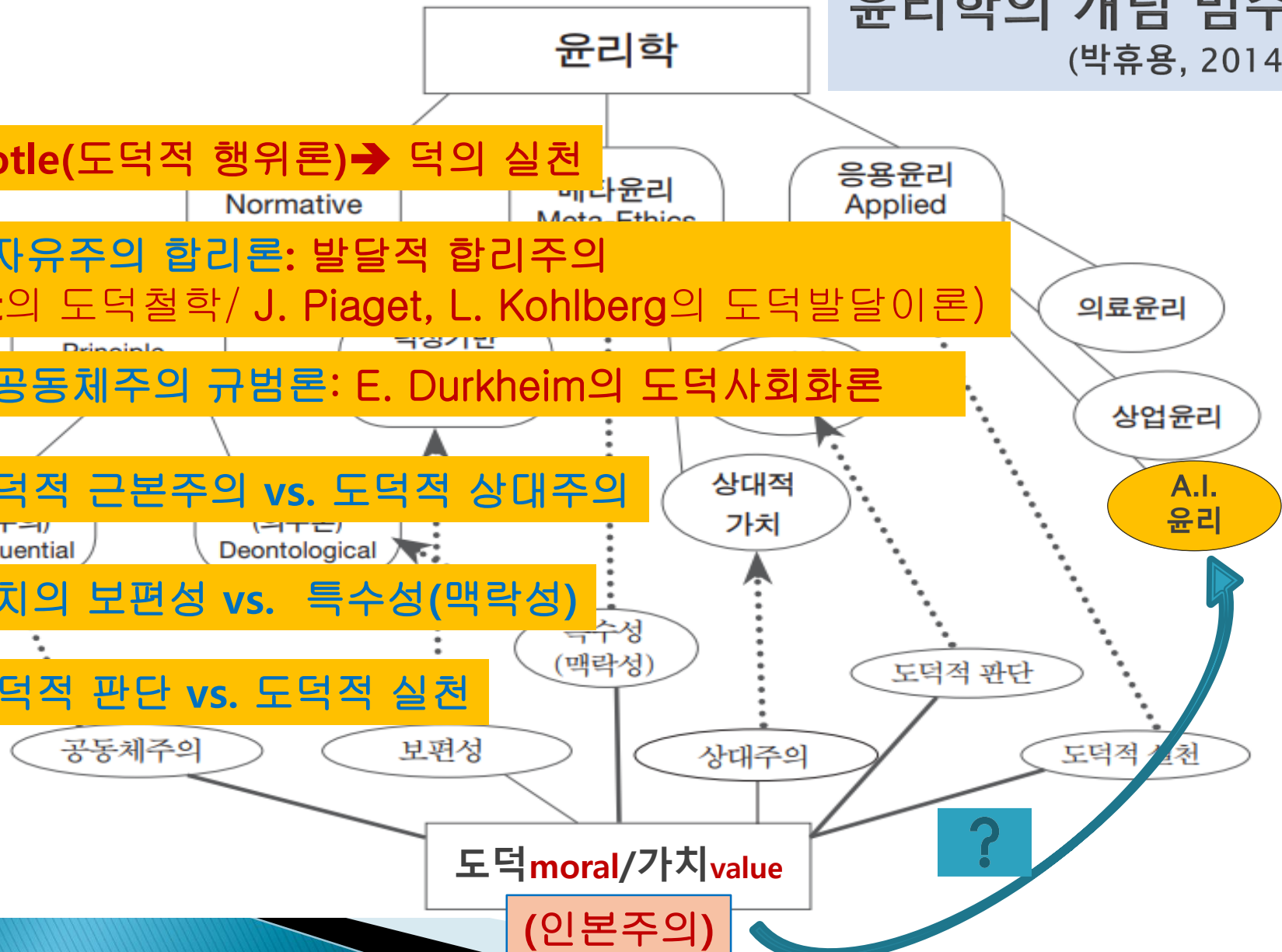
A-1. 자유주의 합리론: 발달적 합리주의  
(Kant의 도덕철학/ J. Piaget, L.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A-2. 공동체주의의 규범론: E. Durkheim의 도덕사회화론

B. 도덕적 근본주의 vs. 도덕적 상대주의

C. 가치의 보편성 vs. 특수성(맥락성)

D. 도덕적 판단 vs. 도덕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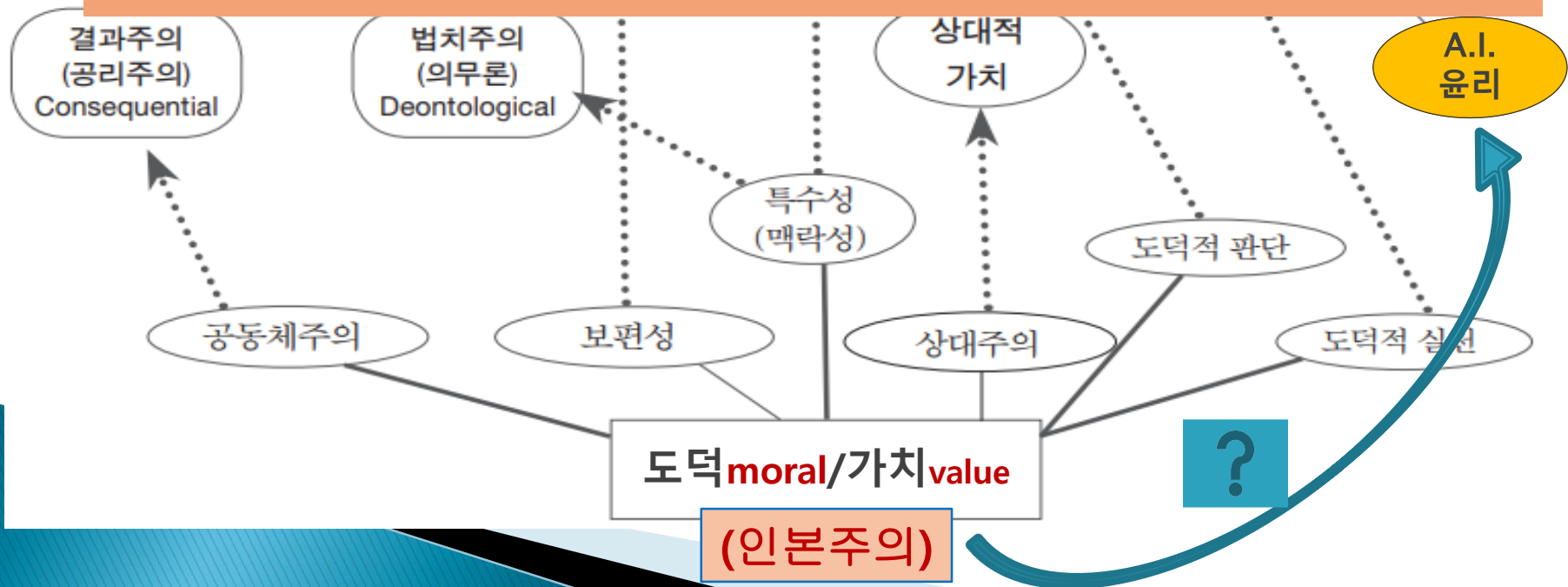
# 윤리학의 개념 범주

\* 도덕 (virtue) → 윤리(value)

윤리학

‘AI 시대의 윤리 문제’를 논하기 위한 기초 질문...

- a. A.I.란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론적 재고)
- b. A.I.와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관계성)
- c. A.I. 시대에 가치value는 변화하는가? (가치론적 재고)



# 윤리학의 개념 범주

\* 도덕 (virtue) → 윤리(value)

윤리학

‘AI 시대의 윤리 문제’를 논하기 위한 기초 질문...

- a. A.I.란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론적 재고)
- b. A.I.와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관계성)
- c. A.I. 시대에 가치value는 변화하는가? (가치론적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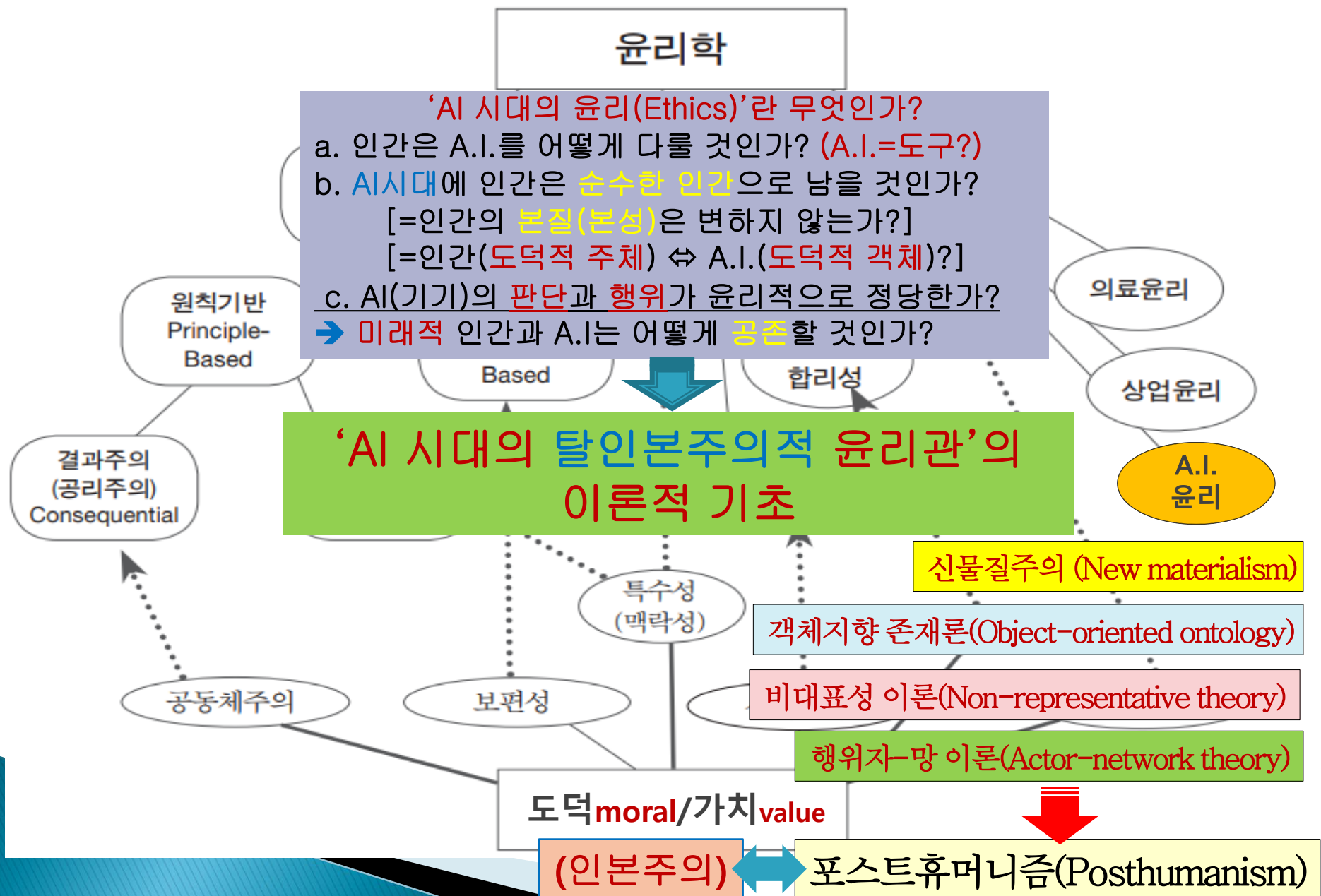
‘AI 시대의 윤리(Ethics)’란 무엇인가?

- a. 인간은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A.I.=도구?)
  - b. AI시대에 인간은 순수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인간의 본질(본성)은 변하지 않는가?]  
[=인간(도덕적 주체) ↔ A.I.(도덕적 객체)?]
  - c. AI(기기)의 판단과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 미래적 인간과 A.I.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도덕 → 가치value

(탈인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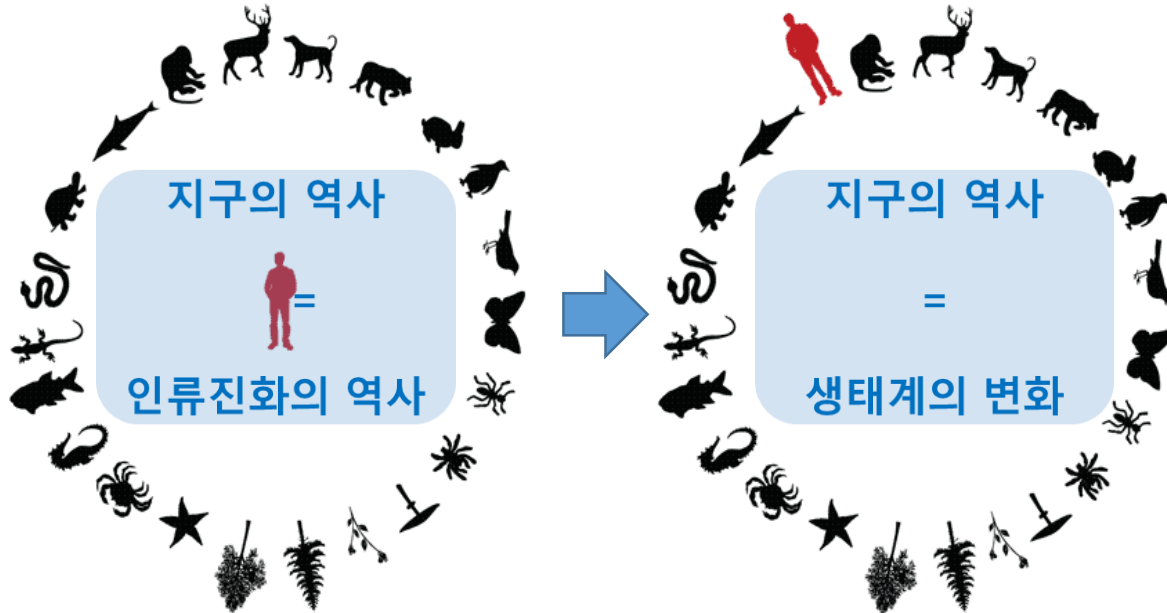
# 윤리학의 개념 범주



## 2. Posthumanism의 존재인식론 (Onto-Epistemology)

### 1) 포스트휴머니즘의 존재론

The nature (The Universe)



Humanism

Post-humanism

인본주의 (Humanism) =  
인류중심주의  
(Anthropocentrism)

Post-humanism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  
에서 '주변부'로 옮기는  
것!



지금까지 '주변부'에 있었던  
비인간적 존재들에 관심!  
→ 생태, 사물, & 관계성



- \* 인류 보편적 윤리 기준(➔ 교육의 목표)  
**민주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생태주의...**  
Q: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이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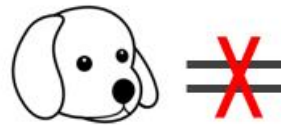
## 휴머니즘!!

(예: 사람이 먼저다~ / 인간이 미래다~)

Q: 인간이 세계/우주의 **주인**인가?



Aristotle ➔  
The Renaiss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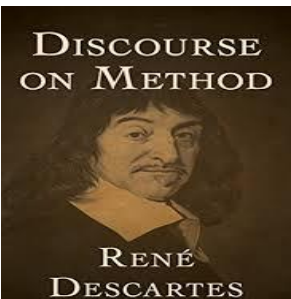


Wannabe ➔



동물성과의 구별 : 인 간 : 신성으로의 동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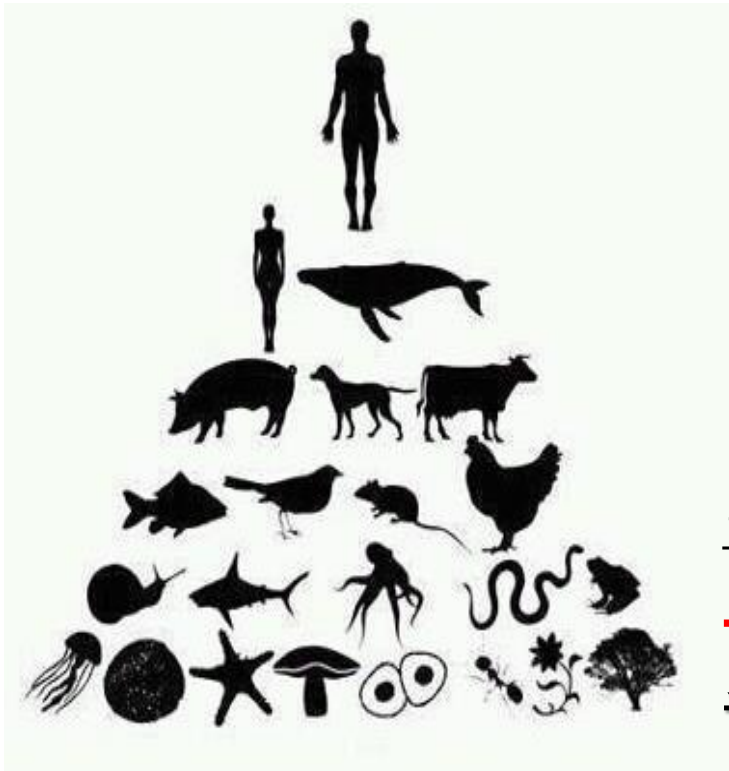
인간 이성의 절대화: “Humanism 만이 영속적인 논리(secular logic)”



But! : 휴머니즘은 명백한 이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이성적 인간’ ➔ 인간 불평등성의 근거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이 human의 범주 속에는 여성, 흑인, 식민피지배인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 휴머니즘은 the educated white European noble man 을 위한 것!

인간됨 (The humanness) 은 모든 인류에게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라, 인간은 교육 (이성의 훈련) 을 통해 되어가는 (becoming)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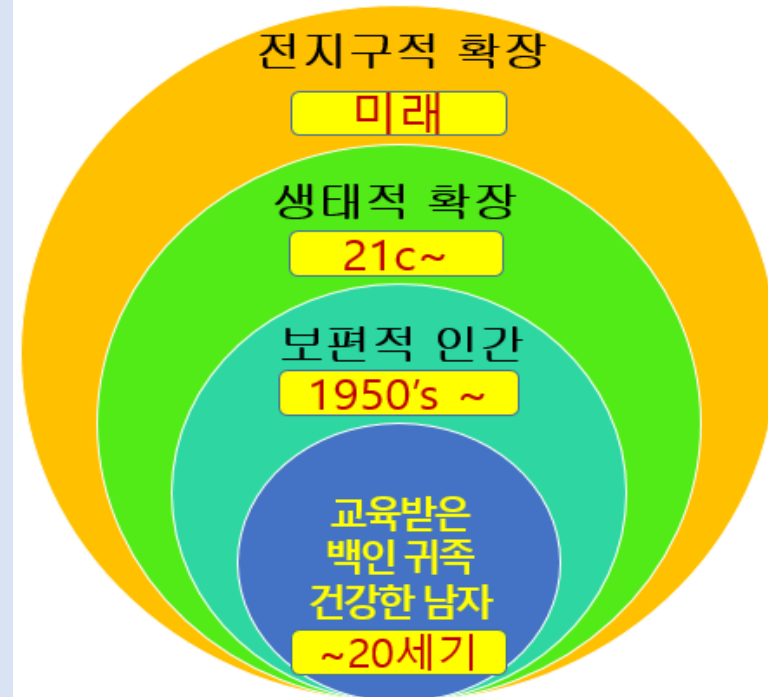
# Homo Sapiens vs. 'The Human'

(모든 현생 인류) ('교육→이성' 갖춘 인간)

## 20세기까지의 인간의 조건들...

1. 정치적 근거 (*Political theory*)  
흑인, 노예, 여성, 장애인도 인간?
2. 교육 정도 (*Educational Experience*)  
교육X, 정신박약자도 인간?
3. Biology (생물학적 특성?)  
개나 고양이도 인간이 될까?
4. Philosophy (철학적 기준?)  
AI도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 '인간' 범주의 확장



# 1) 동물도 '인간'(human-beings)이 될 수 있다!



- **"Dogs Are People, Too"**

Prof. Berns, a neuroeconomics at Emory University... (2014)

-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animals-and-us/201310/are-dogs-people-really>

- **Pets Are Becoming People, Legally Speaking**

- Cats and dogs are gaining more rights, reports author David Grimm (2015)
-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4/04/140406-pets-cats-dogs-animal-rights-citizen-canine/>

## 2) 오랑우탄도 인간으로 판정(2014)

'인격체' 판결받은 33살 오랑우탄, 마침내 새 보금자리 정착

권윤희 입력 2019.11.11. 14:21 수정 2019.11.11. 14:26 댓글 22개

[서울신문 나우뉴스]



인격체 판결 5년 만에 새 보금자리에 정착한 오랑우탄 산드라./사진=Center For Great Apes 페이스북

### 3) AI도 인간인가?

I-It, I-Thou, I-Robot: The Perceived **Humanne** Communication

[D Westerman](#), [AP Edwards](#), [C Edwards](#)... - Communication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become more con partners (human-machine communication; HMC), understa interact with them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study.

☆ 99 10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 전체 2개의 버전

인 (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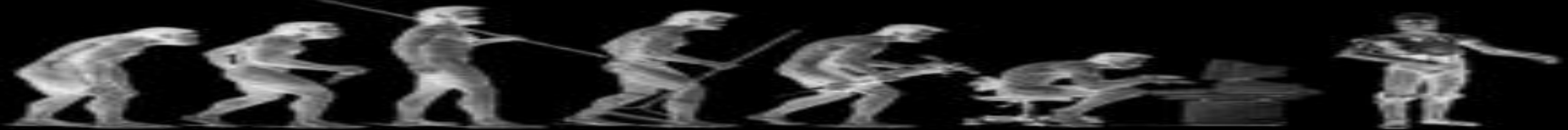
이경규 - 법학연구, 2018 - dbpia.co.kr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류에게 여러 면에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초고도의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소위 기술적 특이점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류사회에의 영향이 ...

☆ 99 4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

인공지능과 법인격

-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 뿐 → (동물 << 인간 << AI)
- AI에게도 사고?, 자유의지?, 정체성?, 인격?, 인권?...
- 이러한 문제들도 점점 철학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
- 오직 **의식(consciousness)** 만이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 Dennett(1993): 의식은 존재의 부현상(Epi-phenomenon: 예, 영혼)일 뿐.
- **인간** 주도적 세계 vs. **AI/기계** 주도적 세계: 윤리적 문제만 남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versational agents: perceived **humanness** in chatbots

[N Svenningsson](#), [M Faraon](#) - Proceedings of the 2019 2nd ...

... KEYWORDS arti cial intelligence; AI; chatbot; **humanne** guideline ... The rest of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review of AI, chatbots, and factors related to perceived **hun**

☆ 99 8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 전체 4개의 버전

☆ 99 1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김성호 - 법학논총, 2020 - papersearch.net

본 논문에서는 향후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人的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여하는 상 황을 가정하여, 그것의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인공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인지, 학습 및 판단능력, 즉 自律性과 知能性을 갖추었다는 데 종래 의 ...

☆ 99 0회 인용



Homo sapiens

과거의 '인간의 조건'

→ The educated white European noble man!



Hominidae

귀족 ⇔ 평민, 노예  
 교육 ⇔ 교육받지 못한 자  
 백인 ⇔ 유색인종  
 남성 ⇔ 여성 / LGBT

~20C



Canis lupus

21C~

"Human being"



Cyborgs

인본주의  
윤리, 교육



\*\*\*\*\*

휴먼의  
범주 확장

포스트휴먼  
윤리 & 교육

‘인간/비인간’의 구별을 거부(연속성)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서구 이원론적  
존재론과 인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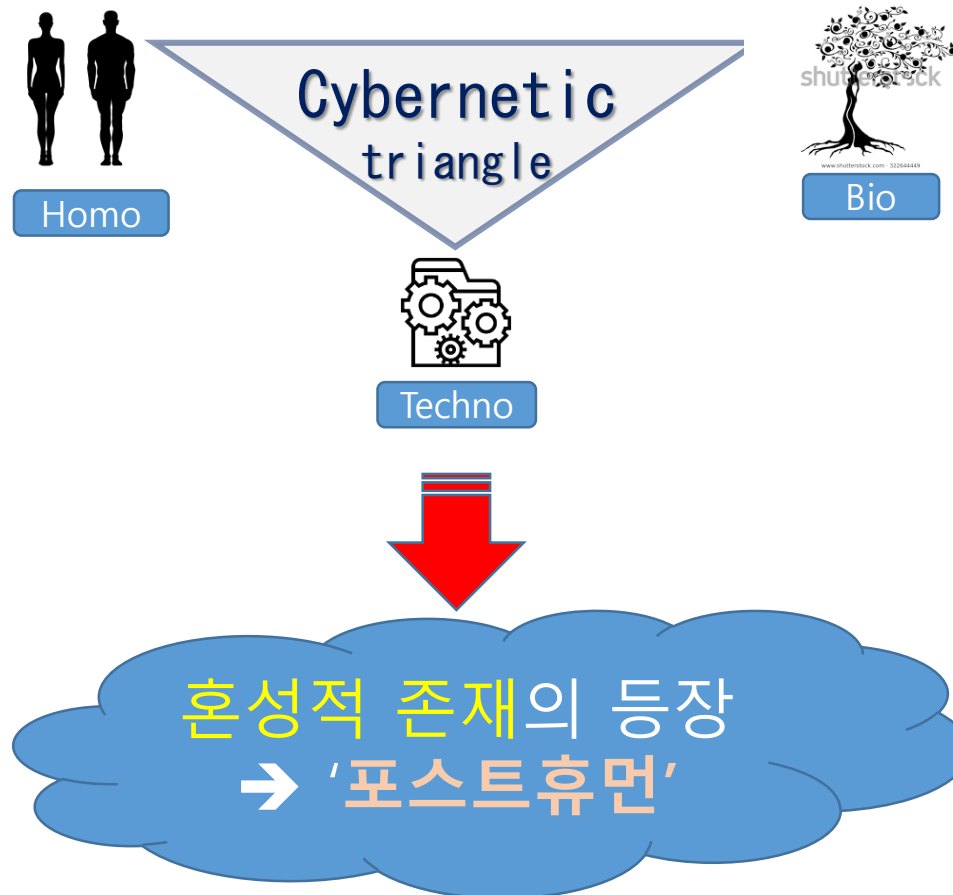
VS

비인간적 주체들(동물, 기계, AI)  
을 위한 Open politics.

### 3. Posthuman적 존재들(인간, 동물, A.I.)의 관계성



## 인간과 기계(기술)의 상호얽힘 (Entanglement)





## \* 포스트휴머니즘의 존재인식론적 기반

a. 비판적 정치윤리학(politico-ethics)

← 가치론

b. 과학기술중심주의 → 생태페미니즘

존재인식론

c. 데카르트의 이원론 → 신물질주의(일원론)

d. (인간)주체 기반 → 객체(사물)-지향(수평적) 존재론

(Object-Oriented Ontology = *flat ontology*)

e. Human Agency → 행위자-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f. 인본주의 → 비대표성이론(non-representative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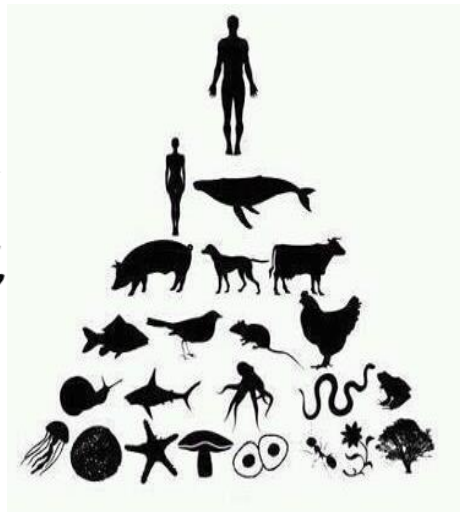
## a. 비판적 정치윤리학 (= Affirmative eco-philosophy)

- 인류 문명 ↔ 자연성 구별 (자연, 여성의 타자화) 해체 (→ 생태페미니즘)
- 인간-동물 구분 X: **생물학적, 언어적, 소통적** 차이는 본질적이 X
- 인간-기계 (AI, 로봇)의 구분에 대한 존재론적 반성

\*Spinoza`s 내재적 윤리학 (Immanent ethics = **Monoism**)

(Richardson, 2014; Smith, 2011)

“사물들은 인간의 사고나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각자만의 독특한 특성 &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 인간(외부자)의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 비인간 존재들은 신이 준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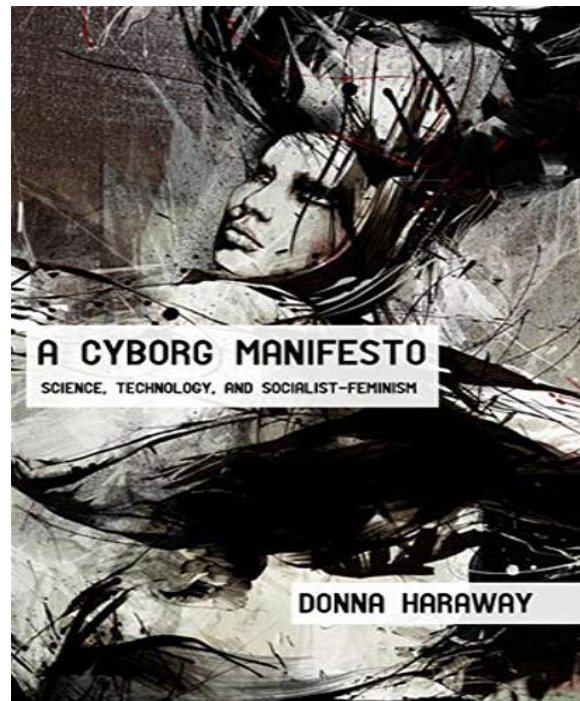
- 자연 파괴의 논리
- 동물학대의 근거
- 유전자 조작 식물 남용

→ 인간이기주의적 기술!

## b. 생태페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의 출발

D. J. Haraway(1985/1991).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Cyborg=젠더 차별 저항의 상징



남성성	문명	이성, 정신	인간
여성성	자연	감성, 신체	동물, 사이보그

최근의 수많은 공상과학 작품들은  
인간과 cyborg적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소통과 정치학적 이해

이성 중심

자연성 중심

과학주의  
계량주의

근대성  
합리주의

보편주의  
구조주의

토속성, 지역성,  
개별성, 일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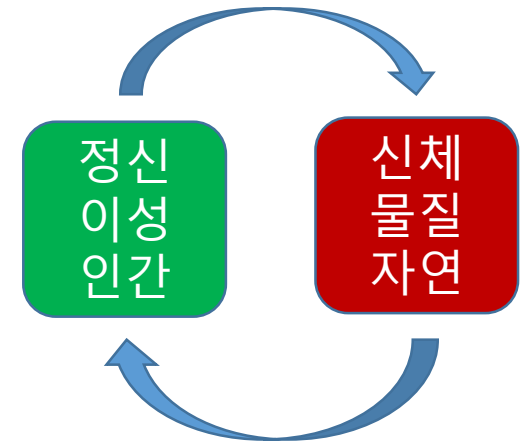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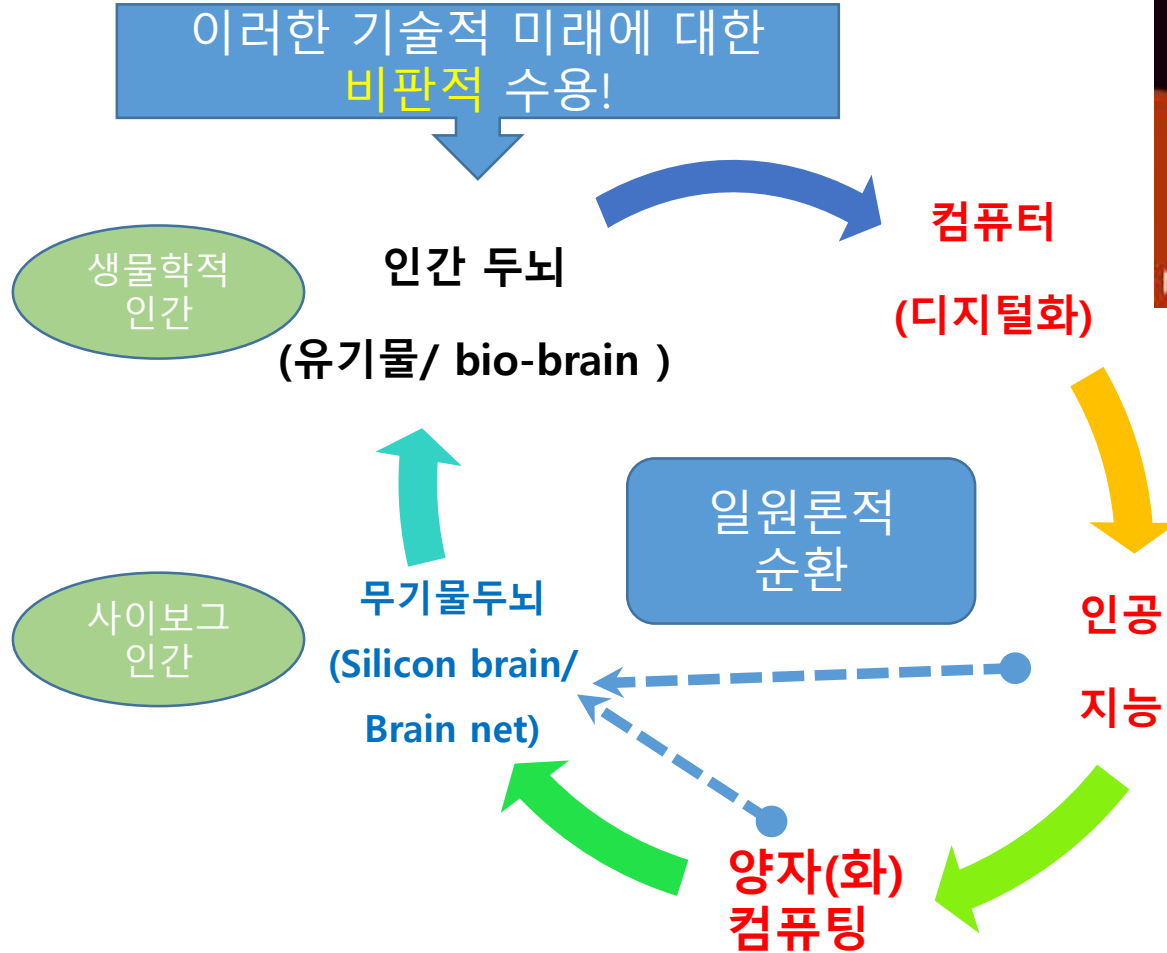
자연성  
감성, 신체

물질성  
기계성

일원론적 통합

PH 방향: 탈인본적 신물질주의(생명=기술)

## c. 신물질주의(new materialism)



➔ 포스트휴머니즘은 human, animals, the organics, machines, materials, & things의 경계를 넘어선 세계관

➔ '포스트휴먼적 윤리'의 철학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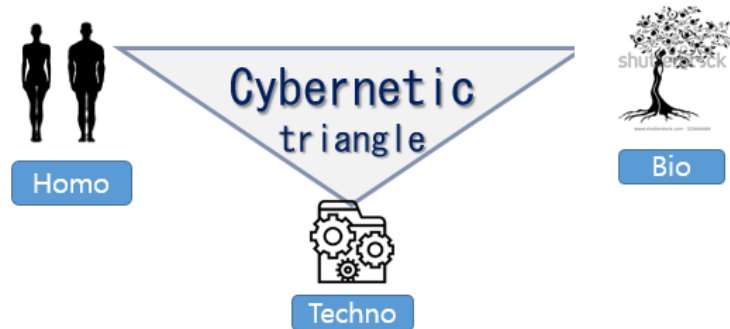
## d.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사물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The ontology of Things)



인간+자연의  
존재인식론적  
통합



“ All objects are ecologies of machanic relations”  
(모든 사물들은 기계적 관계의 생태계에 속해 있다.)

Internet of Things (IoT) / ~Everything (IoE) / ~People (IoP)

‘AI 윤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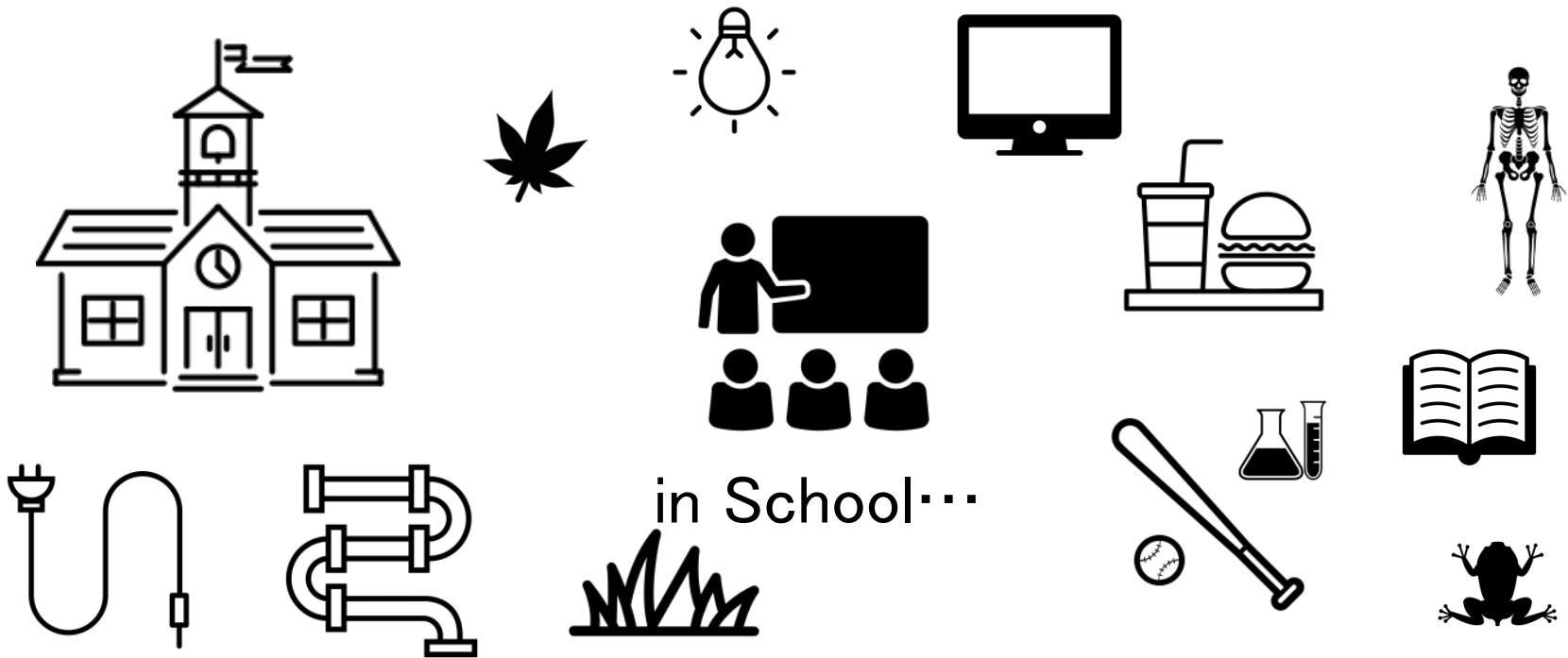
X.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Y. 미래 사회에서 A.I.는 모든 방면에서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Z. 미래에 인간과 기계(A.I.)는 상호의존적 공존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 e. 행위자-망 이론 (Actor-network theory)

→ 세상(자연+인공)은 다양한 존재들의 협력 망 속에서 작동한다.



모든 존재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상호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network!**

→ 포스트휴먼적 윤리의 지향점: 세상의 만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소통하는가를 인식함으로써, 공존적 발전을 모색하기



## f. 비대표성이론(Non-representative theory)

탈인본주의적 인식론:

Representation:  
대표, 재현



- **비대표성** 이론: Thrift(1996, 1997, 1999, 2000, 2007)
- 인간은 세상을 **대표**하지 않는다. 인간의 관점이 실재를 **재현**할수 없다.
- 인간의 관점(**이성, 언어**)으로 세상을 설명해온 것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
- 생기론적(Vitalist) 철학과 과정(becoming) 철학 (Dewsbury, Harrison, Rose, 2002).
- **인류중심주의적 응시**(anthropocentric gaze)에서 벗어나기
- ➔ 생태, 환경 문제 극복, 기술중심 사회의 태도(Hultman & Lenz-Taguchi, 2010).
- 모든 존재들의 **공동 주체화, 공존적 관계성**에 기반한 윤리적 태도
- 다양한 이질적 **네트워크와 연결들의 다중성**(multiplicity)
- 세상에 대한 **개방적(open-ended) 설명 시도하는 실험적 태도**(Thrift, 2007)

## 4. 포스트휴먼적 존재의 윤리적 기초

=윤리적 판단/행위 주체로서의 요건들

### a. 주체성(subjectivity)

휴머니즘: 모든 인간은 평등, 존엄적 가치, 자유의지	*개별적 주체: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자유주의적, 이질적인 자아)
포스트휴머니즘: <b>개별적 주체</b> 의 관념 포기(Haney, 2006)	<b>인간</b> : 환경 속에서 주변의 타인이나 비인간적 종족들 및 실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

→ **포스트휴먼** : 세계 속의 다른 **다양한 존재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불완전 하지만 완성되어 가는 존재

- **포스트휴먼적 주체성**: 인본주의적 주체성과 달리 과학기술적 생산물에 의존, 기능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복합적-의존적인** 주체성

## b. 자기정체성(self-identity)

- **휴머니즘**: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문화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됨.

\*공통적 특성: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혼성적,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 자아(self)에 대한 회고적 관념(Dunn, 1997)

- **포스트휴머니즘**: 첨단기술의 **도구**가 인간의 일부가 되면서 자아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Popovici, 2017)

→ 생물학적 요소와 도구(기계적)의 요소들이 개별 or **집단적 아상블라주 (assemblage)**된 역동적이고 정서적인 에너지의 장(de Freitas & Curinga, 2015)

⇒ **인간 존재 + 기술적 도구 + 사회적 관계성 + 문화적 환경** 등 다면적 영향력에 의해 형성

\* **사이보그적 정체성**: 의식=부수적 현상(epiphenomenon: Dennett, 1999) / 예: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

## c. 인권(Human Right)

- 휴머니즘적 인권: 휴머니즘의 기본 가치, 다문화주의의 주요 논점(Ahmanson, 2017)

- UN의 보편적 인권 선언(1948)

- 인본주의적 인권 개념의 한계

- ① 인권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개념화X(선언적 차원: Douzinas, 2000).

- ② 인간예외주의에 기반:→ 동물의 타자화(Plumwood, 2007),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는 근거(Braidotti, 2013).

- ③ 인권 담론의 억압적 역할:인권 담론화의 제도적, 사회적 장치(Baxi, 2007)

- 인간예외주의의 인본주의가 아닌 보편적 생명권에 대한 대안적 인권 개념의 필요성 촉구(Mendible, 2017)
- 동물권 (animal rights)
- 사이보그에 대한 관점(Clark, 2003; Haney, 2006; Gray, 2000), 인공지능, 지적 창조물들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과 인권(권리)의 여부에 대한 논의

## d. 자유(Freedom)

인간	주체성(목적)	자유의지	능동성
동물, 사물	객체성(대상, 수단)	무의지	수동성

- **인본주의: 인간의 보편적 권리(Casey, 1992)**
- 심리학적(내적 욕구, 주장), 정치적(법적인 근거), 윤리적(도덕적인 가치의 표준)

- 인간은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Segal, 1996)  
→ 인간 제외한 모든 사물들은 외적이고 비인간적 존재로 타자화

Latour(1992, 1993) : 근대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자율성과 자연의 필연성의 변증법적 대립관계로 인간의 자유를 설명

→ 모든 자연 사물에 능동성 부여(Plumwood, 2001: 뉴질랜드 왕가누이강)

■ 객체지향존재론(000)

■ **신물질주의 (페미니즘적 일원론):** 자연 세계와의 불가분한 관계성 속에 놓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와 역할

→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성 뿐만 아니라 자연(물질성)과의 관계성을 다루어야 함 (Barad, 2003)

# AI 윤리 문제(AI ethics): 자율주행차 사례

- FAT: 공정성(fairness), 책무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 i) AI의 판단(automated decisions)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ii) AI의 판단이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는가?
  - iii) AI가 인류를 초월하는(transcend)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Kurzweil, 2005).
- Specific AI vs. General AI // Strong AI vs. Weak AI

## [AI의 도덕적 주체 가능성]

- AI의 도덕적 지위(moral status)는 무엇인가?
- 인공지능은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이 미래 자율주행차의 판단과 행위의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도 있다(Coeckelbergh, 2020).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바로 도덕적 주체(moral agent)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도덕적 주체'로서의 AI 변증

1. 트롤리의 딜레마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판단의 근거가 **보편성(Humanism?)**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도덕적 원리(근본주의, 본질주의,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공리주의...)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2.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판단력**'의 문제는) 인간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인공지능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적 도덕성(functional morality)**: 인류사회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최악과 차악사이**에서 선택하는)에 기반한 선택 알고리즘은 설계가능하다.
3. 현재 자율주행차의 역할은 그 **기술적 역량**(효율적인 이동, 신속한 위험 인식 및 급제동 기능)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인류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Level 5**'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윤리적 문제**이다.)

## '도덕적 주체'로서의 AI 변증

4. AI에게 윤리문제를 묻는 것은 '도덕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즉, 로봇/AI에 대한 두려움(인류에게 해를 끼치거나 지배하지 않을까?)은 두 전제(a. **그들 스스로 주체적 결정을 한다.** B)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다**)에 기반한 것이다.

5.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계(AI)의 도덕적 주체성은 높아진다.**

- =기계에게 결정권을 맡길수록, 인간은 기계의 결정력을 믿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

6. 인간의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 흐름은 비가역적**이다.

- 단, 주체성을 분산시키거나(**분배 효과**), 속도를 늦추는 것(**자연 효과**)은 가능하다.

7. **AI의 확장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위기 및 딜레마)에 대해 걱정하지만, 현재 **인류사회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고 있는 자체적 윤리 문제들**(**불평등성, 부정의, 생태계 파괴**)이 훨씬 더 걱정이다.

- AI의 발전이 이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해'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open politics).

## 5. A.I.(Posthuman)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

비판적(critical) 포스트휴머니즘의 정치윤리학 (Braidotti, 2016...)

### [기술적 진보와 자본주의의 확장]

- Big Data, Algorithms, A.I. & New Capitalisms (Jandrić & Ford, 2020)
    - 기술(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 디지털 기술은 탄소 배출의 정도가 높다(환경문제)(The Shift Project, 2020: ex, bitcoin 채굴)
  - 우리는 생체정보적(bio-informational)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이 상호구축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 Covid-19 팬데믹도 그 부수적 결과일 수도... 신물질주의
- ➔ 정보 바이러스와 생명 바이러스의 변증법 (Peters et al. 2020)

# Inhuman Power: AI effect (Dyer-Witheford, Kjosen, & Steinhoff, 2019)

- 'AI effect': AI가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이상 지능이란 불필요해지게 된다.

➔ 인간 사고의 본질(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 '사고할 수 있는 존재란 무엇(누구)인가'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질 것이다.

## \* 우리는 지금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 자본주의에서 intelligence이나 knowledge은 자본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여부에 의해서만 정의될 것이고 그 속도, 효율성, 끊임없는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 ← 생태교육학(Ecopedagogies)의 비판

# \* 진보된 자본주의의 생명정치학(bio-politics)

고전적 자본주의(19c)	인지자본주의(~20c)	진보된 자본주의(21c~)
육체(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노동력)와 물질(천연자원)의 착취	정신(인간의 지식과 감정)의 착취(Moulier-Boutang, 2011)	모든 생물 종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착취: 모든 존재(인간, 동식물, 유전자, 기계)와 모든 상태성(의식, 기호, 본능, 가상존재)을 자본 시장의 상품화

\* 진보된 자본주의의 점령 분야(Braidotti, 2016)

①사회관계망서비스 시장, ②생명기술서비스 시장, ③생태적 환경 시장

## • 생명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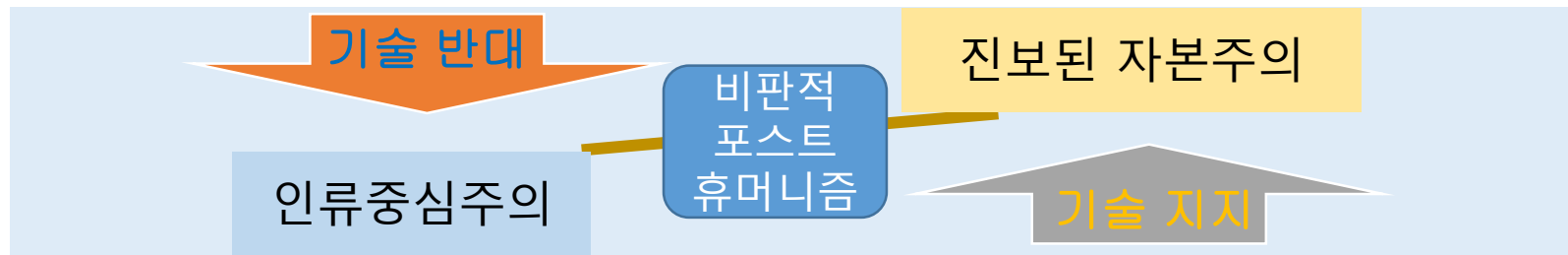
: 생명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음(Foucault, Davidson, & Burchell, 2008; Hardt & Negri, 2000)

: 인간성의 죽음이나 타자화된 종들의 멸종 촉발 → 죽음의 정치학(Mbembe, 2008)

Q: 진보된 자본주의에 기반한 생명정치학은 어떤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가?  
 예, 생명체들 간에 '윤리적' 우선성이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포스트휴먼적 사회에서 통용될 윤리적 가치들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Herbrechter, 2013, Braidotti, 2016)

⇔ 인류중심주의와 진보된 자본주의(advanced capitalism)



- 포스트휴먼적 존재: **생태 + 인간 + 기술이 혼합된 존재**
- 진보된 자본주의의 확장에 따른 정치윤리학적 **딜레마**에 처함
  - ➔ 과학적, 기술적 생산물들이 진보된 자본주의와 협력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조합(assemlage)**의 방식으로 실현될 것(Braidotti, 2013)
-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탈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생태계 속 인간과 비인간적 타자들의 존재론적 의미 재고찰(Wolfe, 2010)
  - 기술중심적 포스트휴머니즘(=transhumanism)에 대한 비판
    - ➔ 이 관점에 기반한 윤리적 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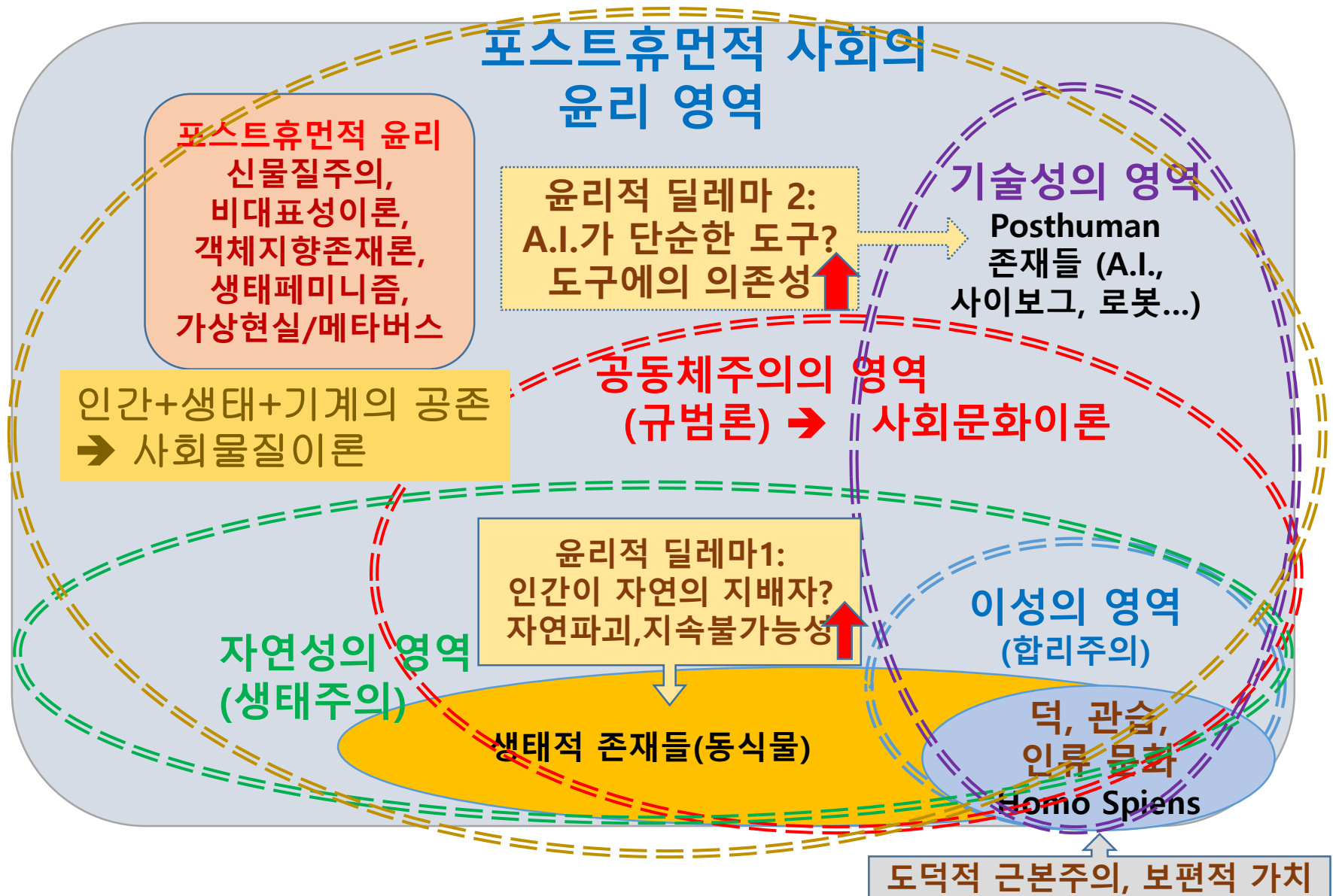
- **진보된 자본주의**가 확장, 통제 의 세 영역(Braidotti, 2016)
    - i) Facebook, Google, Twitter 등 태동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시장,
    - ii) 생명유전학(생명공학, Bioinformatics):
    - iii)
    - → 진보된 자본주의에 투여하여

**인본주의적 윤리적 태도:**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 책임감 등에 기반하여 인류 공영의 목적을 위해 기술적 세계를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을까?**

  - 진보된 자본주의가 설계하는 노르드유럽적 세계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가져올 기술적 성과[**인간강화기술, 유전자 조작, 환경통제, 생명공학, 에너지 및 자원개발**]
  - **개인의 자유**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개인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을 추구한다.
  - 위험 요소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건강, 안전, 보건의료, 안락사, 여가 등-을 통제하고 관리한다(Foucault, Davidson, & Burchell, 2008; Mbembe, 2008).

**포스트휴먼적 윤리 태도:**  
**자연생태-인간-기계문명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 결론: 포스트휴먼적 윤리관의 지형도



## 관련 저술



여러분은 **인본주의자**, **생태주의자**, 아니면 **기술주의자**인가?

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질문:

우주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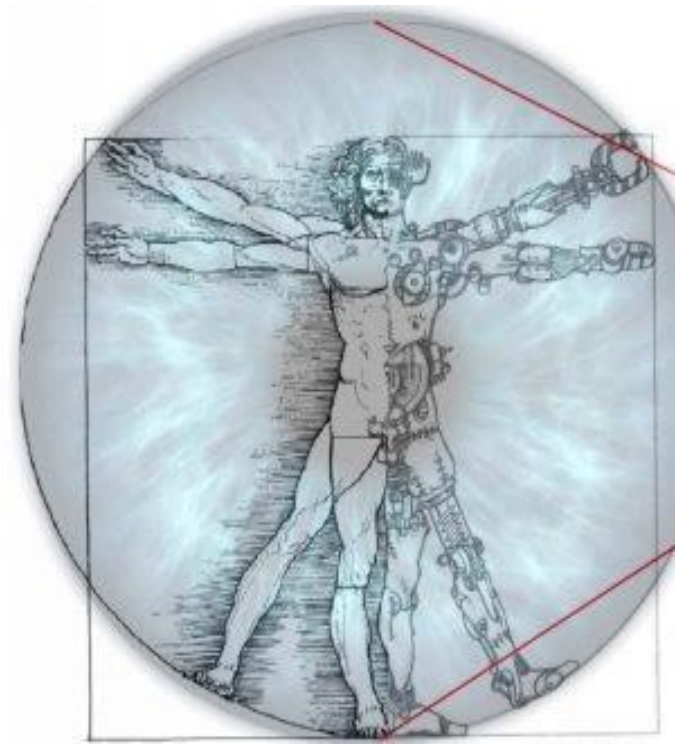
휴머니즘적 윤리 vs. 포스트휴머니즘적 윤리

**인류가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포스트휴머니즘이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phy1@jbnu.ac.kr](mailto:phy1@jbnu.ac.kr)



## 주요 참고문헌

- 박휴용(2014).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격 교육의 개념과 전망. *인격교육연구*.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먼 학습자의 **존재론적 이해**와 학습이론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방법연구*, 31(1), 121-145.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학교교육의 변화와 교사전문성**의 방향. *교육철학연구*, 41(2), 47-80.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먼적 존재인식론에 기반 한 질적 연구의 성격과 방법. *교육혁신연구*, 29(2), 41-68.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먼적 존재인식론과 **학습주체성**의 변화. *교육철학*, 73, 81-119.
- 박휴용(2020). 포스트휴먼 **리터러시**: 개념 및 범주, 이론적 기반, 그리고 교육의 방향. *리터러시연구*, 11(1), 11-55.
- 박휴용(2021). 포스트휴머니즘의 등장과 **학습패러다임**의 변화. *Global Creative Reader*, 10(3).
- Barad, K.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3), 801-831.
- Bennett, J. (2015). Systems and things: On vital materialism and object-oriented philosophy. *The nonhuman turn*, 223-239.
- Bogost, I. (2009). What is object-oriented ontology. *Videogame Theory, Criticism, Design*.
- Braidotti, R. (2006). Posthuman, all too human: Towards a new process ontology. *Theory, culture & society*, 23(7), 197-208.
- Braidotti, R. (2016). Posthuman critical theory. In *Critical posthumanism and planetary futures* (pp. 13-32). New Delhi: Springer.
- Haraway, D. (1985).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Socialist Review*, 15(2), 65-107.
- Harman, G. (2018). *Object-oriented ontology: a new theory of everything*. London: Penguin UK.
- Lorimer, H. (2005). Cultural geography: the busyness of be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83-94.
- Jandrić, P. & Ford, D. R. (2020). Postdigital : Genealogies, Contradictions, and Possible Futures.
- MacLure, M. (2017). Qualitative methodology and the new materialisms. *Qualitative inquiry in neoliberal times*, 48-58.
- Murdoch, J. (1998).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 357-374.
- Richardson, J. (2014). Spinoza, Feminism and Privacy: Exploring an Immanent Ethics of Privacy. *Feminist Legal Studies*, 22(3), 225-241.
- Smith, D. W. (2011). Deleuze & the question of desire: Towards an immanent theory of ethics. *Deleuze and ethics*, 123-141.
- Snaza, N., Appelbaum, P., Bayne, S., Morris, M., Rotas, N., Sandlin, J. (2014). Toward a posthumanist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30(2), 39-55.
- Thrift, N. (2007).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London: Routledge.
- Ulmer, J. B. (2017). Posthumanism as research methodology: Inquiry in the Anthropocen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0(9), 832-848.
- Vannini, P. (2015). Non-representa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In *Non-Representational Methodologies* (pp. 11-28). London: Routledge.